

경북 자치경찰위,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다발지 합동점검

개학기 위해 요소 안전점검 병행

경북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0일 경산 압량초 일대에서 경북경찰청, 경산경찰서, 한국도로교통공단, 학교 관계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.

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 합동 현장점검은 개학기 어린이 보호구역 일제정비와 더불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원인 분석 및 문제점

개선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.

점검대상은 2025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와 사전 점검이 필요한 곳으로, 합동점검반은 현장확인을 통해 ▲ 사고원인 파악, 방호울타리·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현장점검 후 ▲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통한 사고

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.

한편, 경북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민·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반 교통시설 점검 등 일괄정비(2. 11.~4. 17.), 어린이 보호구역 위해요소 안전점검 및 단속(2. 23.~4. 17.)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.

김구동 기자